



실크로드 호령한 ‘키르기즈 영웅 이야기’

‘세메테이’ 28~29일 ACC 예술극장 극장1
마나스 대서사시 원작...오브제 음악극 형식

아시아 영웅설화를 바탕으로, 현 시대 영웅의 조건에 대해 질문하는 무대가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과 29일 오후 2시 예술극장 극장1에서 키르기즈 국립극장과 국제협력공연 ‘세메테이’를 무대에 올린다. 지난해 시범공연을 거쳐 올해 본 공연으로 제작된 ‘세메테이’는 이번 공연에서 유목, 실크로드 등 중앙아시아 문화 및 사실주의 연기 양식과 한국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객에게 익숙하면서도 익숙함을 선사한다. ‘세메테이’는 키르기즈 민족 영웅인 마나스 대서사시를 원작으로 한다. ‘마나스 서사시’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구전 문학 영웅서사시로, 천 년간 구전되어온 키르기즈 민족영웅 마나스 일가의 3대에 걸친 일대기를 그렸다. 세메테이는 고대 실크로드의 패권을 쥔 키르기즈 민족영웅 마나스의 마나스의 아들이다. 공연은 서사시의 두 번째 막이자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로 중심으로 펼쳐진다. 외삼촌을 아버지로 알고 성장하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되는 인물이다. 이와 함께 마나스의 아내이자 세메테이의 어머니인 카스케이, 마나스의 동생으로 마나스가 죽자 모든 것을 빼앗아 새로운 한(汗)이 되는 세메테이의 삼촌 코보슈, 카스케이의 동생으로 카스케이를 보호하고 세메테이를 아들로 키운 이스마일, 마나스의 아버지이자 머느리 카스케이에 유산을 빼앗길까 두려워 죽이려하는 자급 등이 등장한다. 서사에 담긴 다양한 캐릭터와 스토리라인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지닌 서사적 특징, 인간과 운명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닮아 있다. 세메테이의 주변인물을 통해 인간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 배신, 운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셰익스피어의 문학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세메테이의 내적 딜레마로 햄릿의 우수부단함과 광기를, 운명과 싸우는 맥베스의 치열한 갈등을 떠올릴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광활한 서사는 무대 위 시와 음악, 이미지적 접근으로 관객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감을 제공할 전망이다. 특히 직관적인 드라마 구성과 음악이 대사처럼 들리는 오브제음악극 형식으로 국내외 관객이 쉽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현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키르기즈 배우들과 한국 배우들, 프랑스 음악감독과 키르기즈 연주자들이 만들어내는 예술적 협력은 ACC가 추구하는 문화 다양성의 유기적 양상을 제공한다. ‘세메테이’ 공연은 지난 2023년 키르기즈 현지 조사부터 시작해 키르기즈와 한국을 오가는 양국 예술가들의 공동창작 과정을 통해 지난해 시범공연으로 관객과 처음 만났다. 이날 ACC 본 공연 후 오는 12월 세메테이 본국인 키르기즈로 건너가 국립

오페라발레극장 투어 공연을 끝으로 3년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된다. 이번 공연은 ACC와 키르기즈공화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및 국제 문화 교류의 산물인 것도 특징이다. 공적개발원조(ODA)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OECD에서 지정한 협력국의 경제·문화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ACC는 지난 2022년부터 ODA를 통해 키르기스탄, 라오스 등의 문화지원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며, 키르기즈공화국은 이번 공동제작사업을 위해 2년간 5만 달러 규모의 제작 예산을 유치했다. 김상욱 전당장은 “‘세메테이’ 공연은 우리나라와 키르기즈공화국 간 문화산업 협력의 성과물”이라며 “실크로드를 배경으로 한 영웅 이야기로 통해 낯설지만 가까운 키르기즈 문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은 7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장료는 전석 2만원. 정재경 기자 view2018@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과 29일 오후 2시 예술극장 극장1에서 키르기즈 국립극장과 국제협력공연 ‘세메테이’를 무대에 올린다.

결핍 넘어 ‘지혜와 평온에 이르는 길’ 시각화

신창은 개인전 내달 14일까지 드림미술관서
내면의 투쟁...인간 욕망의 파괴적 속성 탐구

사유와 조형 언어의 긴밀한 결합을 통해 동시대의 모순과 허무, 그리고 초월에 대한 인간의 열망을 시각화해온 신창은 작가의 개인전이 지난 10월 29일 개막. 오는 12월 14일까지 광주드림미술관에서 ‘지식의 풍경’(Knowledgescape)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앞서 언급했듯 작가가 꾸준히 탐구해온 화두는 ‘욕망’으로, 이번 전시에도 강렬한 색채 위에 집요하게 새겨진 반아심경 그리고 도덕경의 경구와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화면 위에 각인된 문구를 통해 욕망과 번민, 성장과 평온이라는 인간 내면의 대조적 풍경을 시각화한 작품들을 출품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지식과 욕망의 굴레를 넘어 지혜와 평온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작가는 욕망의 그림자 너머에서 배려와 존중, 그리고 삶의 본질을 끊임없이 길어 올리며, 우리가 욕망을 통해 무엇을 얻고 잃어왔는지를 조용히 되묻고 있는 가운데 예술을 통해 지식과 욕망, 존재와 무(無)의 경계를 성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전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사회적·정신적 현실과 삶의 무게를 예술로 비추며, 작가가 오랜 탐구와 성실한 실험을 통해 확립해 온 조형 세계를 선보인다. 2008년 인도 유학을 계기로 그의 작업은 전환점을 맞이했다. 인도 체류 시절, 작가는 신화와 신적 상징을 매개로 인간 욕망의 양면성과 순환 구조를 탐구했고, 귀국 이후에는 빛·빨·화해·종교도상 등 다양한 상징을 통해 왜곡된 욕망의 허무와 소비의 본질을 드러내며 인간 내면의 근원적 갈망에 대한 사유를 심화시켜왔다. 주제인 ‘지식의 경계’(Knowledgescape)는 지식(knowledge)과 경관 및 조망(scape)의 결합어로 ‘scape’를 ‘escape’

(탈주)로 치환해 지식을 권력화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내적 열망을 함의한다. 작가는 2019년 ‘소진된 욕망’전으로부터 상징적 이미지로 등장한 ‘물거품’을 중심으로 두고, 불교 경전 ‘반아심경’의 구절을 캔버스 위에 병치, 욕망과 초월, 번뇌와 해탈 사이의 긴장을 시각적으로 탐색해왔다. 이번 전시는 ‘지식의 경계’를 세 공간으로 나눠 접근한다. 1전시실에서는 연작을 통해 인간 내면의 치열한 투쟁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화면을 가득 채운 ‘반아심경’의 경구는 집요할 만큼 반복돼 새겨지며, 인간이 축적해온 지식과 그것이 낳은 집착, 그리고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몸짓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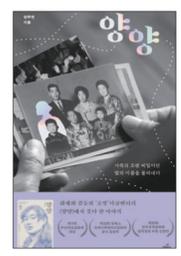
‘지식의 풍경’(Knowledgescape)

또 2전시실에서는 연작의 또 다른 국면을 보여준다. 고요하고 투명한 명상적 풍경 속에서 전시의 흐름은 욕망의 격랑을 지나 차분하고 정제된 평온의 상태로 이동한다. 단순화된 형태와 은은한 색채로 표현된 물거품은 더 이상 욕망의 소용돌이를 상징하지 않는다. 캔버스 위에 새겨진 ‘반아심경’의 글귀는 화면을 가득 채우는 대신 알은 부조로 각인돼 있다. 이는 지식과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 성장과 해탈의 가르침을 내면화한 흔적을 암시한다. 이어 3전시실에서는 1·2전시실의 서사의 출발점이 되는 프롤로그적 공간으로, 인간 욕망의 파괴적 속성을 탐구한다. 불꽃과 음암이 요동치는 화면은 인간 내면의 결핍에서 비롯된 욕망의 폭발을 드러내며, 그 에너지는 스스로를 소진하면서 다시 타오른다. 붉은빛과 검은빛의 충돌은 욕망의 상처와 허무, 그리고 잔열 속에서 되살아나는 욕망의 불씨를 암시한다. 이 공간은 인간을 지배하는 욕망의 불길에 남긴 잔해를 응시하며, 존재의 근원적 공허와 무상함을 드러낸다. 3전시실은 욕망의 발화와 소멸을 통해 전시 전체의 사유적 여정을 여는 서문이자, 인간 존재의 불안정한 기원을 비추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작가는 “혼란하고 살벌한 세상 속에서 그나마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는 것은 고행과 성찰을 통해 길어 올린 성현들의 가르침 때문이다. 불교의 ‘반아심경’과 노자의 ‘도덕경’은 삶에 지친 마음을 다독인다”고 말했다. 변기숙 드림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은 “그의 치열한 탐구와 수행적 태도에서 비롯된 세상은 향한 관조는, 지식의 권력화와 인간성의 소외가 심화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예술이 여전히 ‘존재의 근원’을 탐색할 수 있는 힘의 원천임을 일깨운다”면서 “인간 내면의 욕망과 번뇌의 흔적을 거쳐, 궁극적으로 성장과 평온의 상태에 이르는 미적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고 평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책·영화 매개로 여성 이야기 공감의 폭 넓힌다

광주여성가족재단, 21일 북카페 은세암...‘양양’ 양주연 감독 북토크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오미란·이하 재단)은 오는 21일 오후 3시 재단 1층 북카페 은세암에서 양주연 감독과의 북토크를 연다.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와 평등의 가치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행사는 책과 영화를 매개로 잊혀진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시 바라보고 공감의 폭을 넓힌다. 양주연 감독은 지난 달 정월 다큐멘터리 영화 ‘양양’ 개봉과 함께 동명의 저서 ‘양양’을 출간했다. 책은 감독이 40여년 전 세상을 떠난 고모 ‘지양’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시작된 탐색의 기록으로 가족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한 여성을 다시 불러내는 여정을 담고 있다. 개인의 서사를 통해 시대의 억압과 침묵을 비추며 지금의 사회에 남아 있는 구조적 불평등을 성찰하게 한다. 저서는 영화와는 다른 시선으로 축적된 감정과 사유를 글로 확장해 여성의 흔적을 복원한다. 양 감독은 외갓집 옥상에 남은 총탄 자국을 통해



가족의 과거를 추적한 단편 ‘옥상자국’,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현실을 다룬 ‘내일의 노래’ 등으로 주목받아 온 영상 창작자다. 그의 첫 장편 ‘양양’은 제32회 핫독스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등 다수의 국내외 영화제에 초청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지워진 여성의 이름을 소환하다’라는 타이틀의 이번 북토크에서는 저서를 중심으로 창작 과정과 예술적 메시지를 나누는 다. 김희정 감독의 사회로 작품 소개, 북토크, 질의응답이 이뤄지며 책을 함께 읽고 작품에 담긴 시대적 의미를 함께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미란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북토크는 예술을 통해 여성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시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여는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062-670-0534.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AI 시대, 광주 영상산업의 미래 전략 모색

‘광주영상산업포럼’ 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서 발전 방안 논의

‘2025 광주영상산업포럼’이 18일 오후 3시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광주영상위원회가 주최하고 남해종합개발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광주 지역 영상산업의 비전과 발전 전략 수립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다. 먼저 ‘AI 시대를 선도하는 광주 영상산업의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김경수 교수(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가 AI 기술 발전 현황과 산업 영향을 심층 분석한다. 팀랩과 프릭스 아리스 일렉트로닉스와 같은 성공적 융합 사례로 광주가 인문학적 창의성과 AI 기술력을 결합한 사람 중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각할 예정이다.

이어 장현필 운영위원장(광주영상위원회)이 좌장을 맡고 이상훈 이사장(광주영화영상인연대)과 김혜선 책임연구원(광주과기원한국문화기술연구소), 고광연 전문위원(시청자미디어재단), 유동국 교수(동강대 미디어콘텐츠과), 김길 팀장(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실감영상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AI 시대, 광주 영상산업의 핵심 비전 및 발전 전략, AI 기반 영상 콘텐츠 개발, 광주형 AI 영상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한다. 광주영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AI 시대에 광주 영상산업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핵심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경 기자